

「2026년 기상·기후 사진 전시회」 개최

- 제주 말의 강인한 모습을 담은 ‘설중마’ 등 기상·기후 관련 작품 전시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임덕빈)은 세계 기상의 날(3월 23일)을 맞이하여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주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 ‘2026년 기상·기후 사진 전시회’를 개최한다.
-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개최된 ‘제43회 기상기후 사진·콘텐츠 공모전 입상작’과 과거 기상·기후 사진전 중 제주에서 촬영한 작품, 그리고 기후변화과학의 의미를 표현한 달콤기후 공모전 그림 등 총 52점이 전시된다.
- 아울러, 제주지방기상청의 근대 100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이와 관련된 기록물, 기상관측장비 등도 전시되어 제주지역의 기상·기후와 기상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.
- 전시 관람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되며 특히, 주말에는 전시 작품에 대해 기상·기후 전문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.
- 임덕빈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“자연이 빚은 경이로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기상·기후에 관한 관심과 공감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홍순환 (064-909-3941)
		담당자	주무관	조계민 (064-909-3947)

붙임

2026년 기상·기후 사진 전시회 주요 전시작품

○ 제43회 기상기후 사진·콘텐츠 공모전 수상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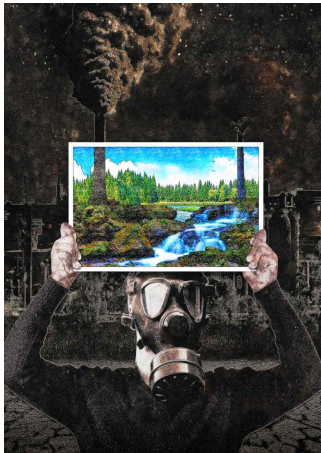


구름이 빛은 소용돌이_석기철(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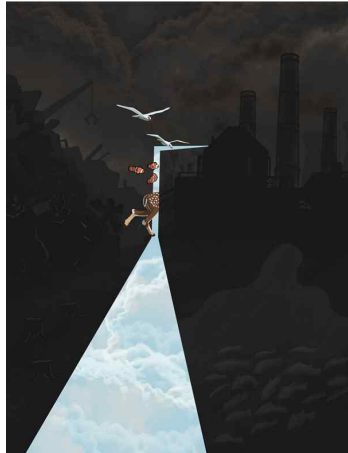


설중마_강병진(금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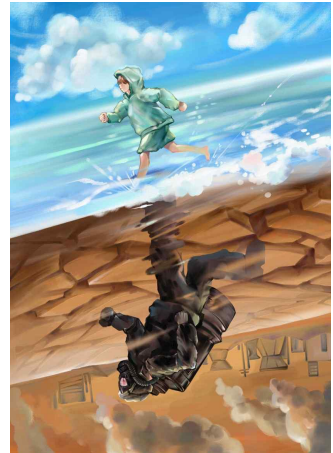
○ 달콤기후 공모전 수상작



추억이 될 현재, 현실이 될 미래
(김재영, 2025년 대상)



문이 곧 닫힙니다.
(박소현, 2024년 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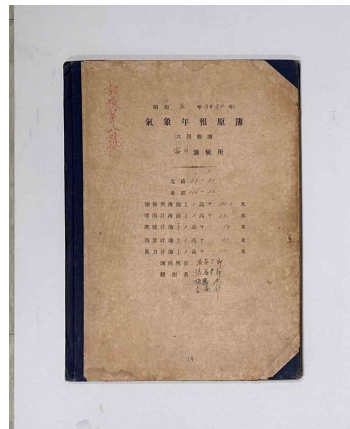


현재에 비친 미래
(임다현, 2023년 대상)

○ 전시용 기상관측장비와 기록물



기상관측장비(풍속계)



기록물(기상연보 원부 - 1923년)